

조각보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제안

박 한 힘[†]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조교수[†]

A proposal for fashion design based 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Jogakbo'

Hanhim Park[†]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Marketing, Keimyung University[†]
(2021. 5. 3 접수; 2021. 5. 30 수정; 2021. 6. 11 채택)

Abstract

This design proposal research is meaningful as Jogakbo can retain the traditional value of the it's design as it becomes a contemporary design proposal. As a specific method of research, history was been investigated to find meaning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defined through prior research under the theme of Jogakbo. Ideas, such as silhouettes, details for design, and the making domestic and foreign designer examples were obtained. The fabric used for the works were recycled from past leather works. All materials are sheep skin. There were various processed surfaces used to avoid monotony. Jogakbo's cotton composition focused on free and radial patterns. The pattern was manufactured using a flat and 3D combination, and the selection of items was mainly made with a simple and light silhouette, so that Jogakbo's details, such as dresses, slip dress, and vests could stand out. Color is an important factor in Jogakbo. However, traditions which are relics of the times, do not need to be preserved in their original form. If changes are inherited with reasonable grounds and directions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the significance and values are retained are sufficient. It is hoped that these design development studie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so that our precious cultural heritage can continue to change and develop positively.

Key Words: Jogakbo(조각보),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전통의 재해석), unconventional(파격), leather fashion(가죽패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 사회의 문화 수준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또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다문화가 함께 공존하며 변화를 이끌어 가고, 궁

[†]Corresponding author ; Hanhim Park
Tel. +82-53-620-2247
E-mail : ultrahandsome78@hanmail.net

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다방면의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수많은 다양성과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위치에 이르렀을 것이다. 인류는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노력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쌓여가고 계승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자는 변화하는 시대의 유산인 전통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합리적인 근거와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디자인 제안 연구를 계획하게 됐다. 전통은 사회 전체의 창의적이며 소중한 문화 자산이며 가치이다. 그러므로 후세대는 전 세대로부터 이어 받은 전통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창의적 시도들은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일 것이다. 조각보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할 전통의 일부분일 것이다. 조선 후기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조각보는 당시 여인들이 천으로 침구류나 옷 등을 만들고 남은 조각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부분들만을 골라서 모아두었다가 이어서 만든 것으로, 당시 여인들의 절약 정신의 산물로 생겨났다(양지나, 2013). 그런데 의도치 않게 천을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미적 감성을 보여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조각보를 한국의 전통 공예 분야로 재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게 됐으며,

현재는 다양한 생활 디자인 분야에 응용돼서 제 품화되고 있다(김경희, 차영순, 2019).

2. 연구의 목적

이 디자인 제안 연구는 조각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형적 특성 중에서 형태적 특징을 디자인 모티프로, 가죽 자투리 소재를 재활용해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패션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했다. 가죽은 소재의 특성상 자투리 조각의 쓰임새가 다양하고, 몇 번을 재활용해도 소재가 가진 미적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조각보의 조형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절한 소재로 판단했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 조각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조각보가 가진 상징적 의미나 역사, 조형적 특성 그리고 표현 기법 등을 조사한 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먼저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가죽을 이용해서 조각보의 이미지와 구성 방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여섯 작품을 제작했다.

II. 이론적 고찰

1. 조각보의 개념 및 특징

조각보는 침구류나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 조각이나 낱아서 해진 천에서 성한 조각들만을 잘라서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연결해 만든 일종의 생활 공예품이다. 조선 시대 천이 귀했던 시



〈그림 1〉 모시 조각 상보

(출처: <https://m.blog.naver.com/leigh63221251728062>)



〈그림 2〉 덕수궁 돌담

(출처: <http://sjogakbo.tistory.com/categorypage=2>)

대 상황과 당시 여인들의 알뜰한 생활 정신에서 시작된 조각보는 천을 가능한 한 남김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크기나 형태가 다르더라도 그대로 이어 붙여서 사용했고, 각 조각이 가진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붙이다 보니 전체적인 형태가 자연스러운 구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김지연, 2009). 조각보가 처음 등장한 조선 후기는 외침이 잦았던 시기로,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으며 직물의 재직이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던 시대였다(심연옥, 2006). 조각보는 조선 후기, 당시 상황이 만든 우리나라의 시대적 산물이었다.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 시대에는 염색이나 천을 만드는 일이나 바느질해서 옷이나 침구류를 만드는 일은 여성들의 일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조각보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한가지는 기능적인 특성과 다른 한 가지는 예술적인 특성이다.

먼저, 기능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철에 사용된 조각보는 주로 통풍이 잘되는 모시로 만들어졌으며, 겨울철에는 두꺼운 소재를 덧대어서 겹 조각보를 만들거나 솜을 누벼 넣기도 하는 등 만들어진 시기와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허동화, 1998).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각보가 선 기획되지 않은 무작위로 자투리 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수공예품이었음에도 만든 사람의 예술적인 미적 감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조각보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공예가가 아닌 서민 여성들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조각보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색이나 형태 그리고 배치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서 당시 여인들의 가장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감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래 좌측의 이미지는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모시 조각보의 사진이고, 우측은 조각보의 구성이나 형태의 모티프로 주로 사용되곤 했던 당시 담벼락의 사진이다.

조각보의 용도는 보통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한 폭 내외는 받침이나 덮개 혹은 노리개 등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두 폭 내외의 조각보는 대부분 상보로 사용됐다. 세 폭 이상은 옷감이나 빨래, 이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각보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 소재로는 견직물이나 모시 등 조선 시대 당시 의복에 주로 사용된 소재와 일치한

다. 조각보는 보통 같은 종류의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꺼운 소재는 두꺼운 소재끼리, 얇은 소재는 얇은 소재끼리 이어져 만들어졌다(김정미, 2006).

2. 조각보의 조형적 특성

1) 구조적 특징

조각보는 디자인 기획과 구성을 먼저하고 천을 잘라 의도된 배열과 위치에 맞춰 제작하는 것이 아닌, 옷이나 침구류를 만들고 난 후 남은 자투리 천 조각을 이어 붙이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조각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자기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는 생필품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미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조각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비례와 균형, 그리고 조형성이 작금에 재평가 받으면서 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조각보는 당시 서민들, 특히 여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예술적인 표현으로 투영되어 바느질로 천의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행위로 터득된 미적 산물이다. 다음의 이미지들은 조각보를 응용한 생필품 디자인의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조각보의 대표적인 제작 기법으로는 감침질과 홈질이 있는데 시점으로 만들어진 선의 분할과 면과 면의 대비를 통해 구성된다. 당시 조각보의 구성과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담벼락이나 문틀, 창살, 가구 등 가옥의 실내 구조를 띠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유교적인 사회 규범으로 인해 외부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당시 여인들이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각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의 이미지는 감침질과 홈질을 이용한 조각보의 제작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다.

조각보를 구성하고 있는 패턴은 구성 형식에 따라 크게 사각형(직사각형), 방사형, 여의주문형 그리고 자유형으로 나뉜다(정용순, 2014). 조각보의 사각형 배치구성이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조각의 형태 자체가 사각을 띠고 조각을 모은 단위가 사각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그리고



〈그림 3〉 화장 거울

(출처: <https://www.tmon.co.kr/deal2471926838>)

〈그림 4〉 식탁보

(출처: <https://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647761313>)

〈그림 5〉 컵 받침

(출처: <https://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475975044>)

〈그림 6〉 동전 지갑

(출처: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598621610>)

〈그림 7〉 감침질

(출처: <https://blog.daum.net/conniehy723>)

〈그림 8〉 흠질

(출처: <https://m.blog.naver.com/rain2joa/140119893487>)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박현주, 2011). 방사형 배치구성은 조각보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네모꼴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원이 외곽으로 퍼져나가듯이 네모꼴이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구성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 2〉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여의주문형 구성은 조각보를 이루는 구성의 기본 단위가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이 겹쳐진 형태가 마치 같게 나열된 여의주와 닮았다고 해서 여의주문형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조각보를 구성하는 원은 모두 같은 크기이며 원과 원이 겹쳐져서 마치 꽃잎이 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3〉과 같이 입체감이 돋보이는 꽃잎의 형태 표현이 여의주문 배치형 조각보의 대표적인 구성 특징이다. 〈그림 4〉는 조각보의 자유 배치형 구성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이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과 삼각형이 어우러져 일정한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어져서 만드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형 구성 패턴의 조각보는 다른 구성을 가진 조각보들과 비교해서 조형미가 더 뛰어난 예가 많은데 이는 자투리 조각 전체가 계산된 구성 안에

서 정돈된 아름다움보다는 규칙성이 배제되어 있지만 산만하지 않고 고도의 미학 아래 수십 개의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허동화, 2004).

2) 색채적 특징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자연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선호하는 색 또한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였다. 특히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음양오행에 근거한 청, 적, 흑, 백, 황색을 특히 선호했는데 이를 오방정색 이라고 한다(문은배, 2002). 조선시대 서민들은 보통 염색이나 표백을 하지 않은 날것의 소재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명절이나 혼례와 같은 날에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색동옷을 입혔다. 색동에 사용된 색은 오방색 중에서 흑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섞어서 사용했으며 혼례 때 신랑과 신부에게 쓰였던 청색과 홍색 역시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청은 남자를 홍은 여자를 상징했다(정용순, 2013).

옷이나 침구류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 조각



〈그림 9〉 정사각형 구성

(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_nview.php?code=20111110000218)



〈그림 10〉 방사형 구성

(출처: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409957115111.pdf>)



〈그림 11〉 여의주문형 구성

(출처: http://koreafashion.org/info/infoc_content_view.asp?num=-5_pageNum=_catalogx=803_clientIdx=135_SrchItem=_SrchWord=_flag=2)



〈그림 12〉 자유형 구성

(출처: http://m.blog.naver.com/compnc112_20780573161)



〈그림 13〉

칼 라거펠트 2015 샤빌 크루즈 컬렉션, 서울

(출처: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002375100013>)



〈그림 14〉

이상봉 2009 빅토리아 & 알버트 뮤지엄, 런던

(출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pkgId=49500553&newsId=148736397>)

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의 색채 구성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해서 의복에 주로 쓰였던 색상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의도하지 않은 소재의 선택과 조합 그리고 이어 붙이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조각보의 색채 구성 방식은 독창적이며 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각보를 만드는데 사용된 천의 종류에 따라 색의 사용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두꺼운 소재의 조각보는 청색이나 홍색과 같은 원색의 사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간색은 녹색이나 분홍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민병희, 1995). 색의 배열은 강렬한 대비를 주로 사용했으며 얇은 소재에는 동색의 계열이 많이 보였는데 2차나 3차의 간색들을 바탕으로 사용했을 때는 적색이나 흑색과 같은 원색을 함께 배치한 경우가 많았다(김희정, 1999).

3) 디자인 사례연구

국내를 비롯해 해외 디자이너 중에서도 한복을 주제로 한 컬렉션을 선보였던 디자이너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샤빌의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와 이상봉 디자이너는 조각보를 컬렉션의 메인 콘셉트로 한 컬렉션을 선보여서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2015년 5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칼 라거펠트는 한복과 조각보를 모티프로 해서 색동 드레스와 베이지색 오간자 드레스를 선보였다. 그는 이날 전형적인 한국적 실루엣을 담아 하이웨스트로 디자인했고,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훌륭하게 조화시켰으며, 한국적 요소를 글로벌 문화에 신선하게 접목시켰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문자와 그림 등 다양한 한국적 요소들을 작품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2009년 런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한국과 영국의 문화교류 행사의 하나로 열린 패션쇼에서 오색찬란(五色燦爛)이라는 행사의 주제 아래, 단청과 조각보를 디자인 모티프로 작품을 선보였다.

Ⅲ. 디자인 제안

1. 디자인 기획 및 콘셉트 설정

디자인 제안 연구의 주제어는 파격(破格)으로 정했다. 최근 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관심의 증가로 인해 전통음악이나 복식, 미술 분야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악 분야에서는 이남치와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그림 15)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작업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복만 입고 무대에 등장하기만 하면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로 관객의 외면을 받던 국악을, 정장에 고무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쓴 채 댄서들은 댄스 비트의 수궁가에 맞춰 신나게 스텝을 밟으며 대중의 큰 호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2021년 2월 17일 현재 이들의 유튜브 조회 수는 3억을 넘어섰다. 미술에서는 이보다 한참 앞서 작가 손동현(그림 17)이 서양의 캐릭터와 한국화를 접목해 한국화는 어려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상식을 과감히 깬 참신한 시도를 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뒤이어 김현

정(그림 18) 등이 뒤를 이어 한국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패션에서도 1세대 디자이너인故이영희 디자이너나 이상봉 디자이너가 서체나 그림 등을 이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음악이나 미술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상봉 디자이너는 2009년에 S/S 시즌에 조각보를 주제로 한 컬렉션을 개최한 바가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조각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작업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작업이 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조각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오방색의 사용을 과감하게 건어내고 형태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기로 했다. 색의 사용은 조형 작품이 원본 모티프인 작업은 보는 이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두 작품간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므로 작업이 수월하다. 그러나 그만큼 이전의 작업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고, 참신한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 1세대 디자이너들의 전통을 계승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했던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패션디자인 개발연구는 선조들의 우수한 미적 감각과 미학의 정수가 디자인의 곳곳에



〈그림 15〉 이남치,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RcrwSWw3bH8>)



〈그림 16〉 손동현 작 마이클 잭슨
(출처: <http://blog.daum.net/clw22226366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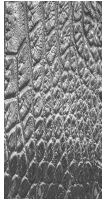





〈그림 17〉 손동현 작가
(출처: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8294797_volumeNo=20165908)



〈그림 18〉 김현정 작 내승녀 시리즈 중
(출처: <http://www.vogue.co.kr/20160806kim-hyunjung>)

〈표 3〉 소재 디테일

표면 확대 이미지	소재 (표면 가공별 분류)			
	악어가죽	베지터블	나파	페이퍼
				

녹아있는 깊이 있는 디자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의 특징에 맞춰 가죽의 면 구성과 재단을 진행했으며, 패턴의 제작은 평면과 입체를 병용해서 사용했다.

2. 아이템 구성

아름다운 색의 조화가 돋보이는 조각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상충하는 검은색의 강인하고 거친 이미지의 가죽 소재를 활용해서 조각보의 형태적 특징만을 드러나도록 하는 디자인의 제안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단순한 실루엣의 아이템 위주로 컬렉션을 구성했다. 조각보의 사각형, 방사형, 여의주문형, 자유형 구성

3. 의상제작

1) 실루엣과 디테일

조각보의 구성 특징 중에서 자유형과 방사형 구성 위주로 전체 컬렉션을 제작했다. 여의주문형 구성은 디테일이 복잡하고 시접의 중첩이 많아서 봉제했을 때 옷의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너무 경

〈표 1〉 디자인 아이템 구성

	디자인 1	디자인 2	디자인 3	디자인 4	디자인 5	디자인 6
아이템	숏 드레스	민소매 조끼	민소매 라이더 재킷	V넥 드레스	슬립 드레스	숏 드레스
특징	자유형	자유형	자유형	방사형	자유형	방사형

〈표 2〉 디자인 면 구성

	자유형	방사형
면 구성 디테일		

직되어 보이거나 가죽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봉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부분들도 많았다. 또한, 날것의 가죽이 가지고 있는 멋을 살리기 위해 끝단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서로 어긋나는 디테일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다. 여의주문형은 한복이나 보자기, 이불과 같이 면적이 큰 아이템에 더욱 적합한 구성 방식으로 판단된다.

자유형과 방사형 구성은 패턴 제작 과정에서 인체의 곡선을 고려한 면의 분할이 가능했고, 입었을 때도 움직임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 또한, 인체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거나 숨기게 하는 등 패턴이 해야 할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디자인 3을 제외한 다섯 개의 디자인은 모두 소매 없는 드레스 아이템으로 제작했고, 부분적으로 디테일에 변화를 줘서 컬렉션에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3은 라이더 재킷에서 모티프를 얻은 디자인

으로 디자인 1이나 디자인 4의 재킷 개념으로 디자인했다.

2) 소재

자투리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죽의 재질을 맞출 필요는 없었다. 제작에 사용된 가죽은 모두 양가죽을 사용했지만, 표면 가공은 악어 가죽 가공, 베지터블 가공, 페이퍼 가공, 나파 가공 등 다양한 표면 가공을 거친 가죽을 혼용해서 사용했다. 가죽은 몇 번이고 재활용해도 가죽 소재의 특성이 유지되고 기본 원피가 같다면 표면이 다른 가죽을 혼용해서 사용해도 소재간 이질감이 적어 사용에 무리가 없다.

3) 실물의상

〈표 4〉 최종 디자인 제안

최종 디자인별 이미지		
		
디자인 1	디자인 2	디자인 3
		
디자인 4	디자인 5	디자인 6

V. 결 론

이 디자인 제안 연구는 조각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가치를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조각보를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역사와 의미 그리고 조형적 특성을 살펴봤으며, 국내 및 국외 디자이너 사례를 통해 디자인 제작을 위한 실루엣 및 디테일 등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소재는 본 연구자가 기존에 사용했던 가죽 소재의 자투리를 모아놓은 것을 재활용했으며, 원피는 모두 양가죽이지만 표면은 다양한 가공을 거친 것을 사용해서 검정 일색으로 단조로워 보이지 않도록 했으며, 조각보의 면 구성 방식 중에서 자유형과 방사형을 위주로 해서 면의 구성과 재단과 봉제를 진행했다. 패턴의 제작은 병용식을 사용하며, 아이템의 선정은 원피스와 드레스, 조끼 등 조각보의 디테일이 돋보일 수 있도록 실루엣이 단순하고 가벼운 느낌의 기성복 위주로 정했다.

기존의 조각보를 모티브로 했던 작업과의 차별화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작 기법이나 디테일들을 보여주고자, 작품에서 기존의 조각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오방색의 사용을 완전히 건너 내 봤다. 조각보에서 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소재에 따라 단색의 조각보 사례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며, 시대적 유산인 전통이 꼭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야만 그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합리적인 근거와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변화하고 이어져 나간다면, 그 나름의 의의와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젊은 세대의 전통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재해석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패션도 이 같은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디자인 개발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돼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 참신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는 산업패션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해본 디자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지연. (2009). 조선시대 조각보의 색채와 면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포럼학회지*, 19(19), 27-36.
- 김경희, 차영순. (2019). 조각보의 기하학적 형태가 지닌 조형성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2(4), 181-201.
- 김정미. (2006).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4), 507-518.
- 김희정. (1999). *조각보 기법을 이용한 아동복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희. (1995). *조각보의 면 구성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배. (2002). *색채의 이해*. 서울: 국제출판.
- 박현주. (2011).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연옥. (2006). *한국 직물문양 이천년*. 서울: 삼화인쇄출판사.
- 양지나. (2013). 전통 조각보 기법에 나타난 조형성 및 여성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동양예술*, 22, 239-263.
- 정용순. (2004).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과 재래식 스크린 날염의 비교연구. *디자인학연구학회지*, 17(2), 363-372.
- 정용순. (2013). *한국 전통 조각보의 현대적 해석: 실용 오브제에서 아트 오브제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동화. (199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서울: 현암사.
- 허동화. (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